『통학경편(通學徑編)』의 자석(字釋) 연구*

서수백**

<차 례>

1. 머리말
2. 대상 자료의 체재
3. 자석(字釋)의 수록 양상
4. 마무리

【국문초록】

본고는 그간에 연구되지 않았던 한자초학서 『통학경편(通學徑編)』(1921)을 대상으로 수록된 자석(字釋)의 특징을 살펴본 것이다. 전반적으로 『통학경편』은 초학자용 한자학습서라는 문헌의 편찬 취지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통학경편』에 수록된 표제한자 수는 총 1,244자로 『천자문』보다는 244자가 더 많지만, 『훈몽자회』와 『신증유합』에 비하면 3분의 1일 정도에 해당한다. 표제한자의 자석은 모두 단자석(單字釋)으로 제시되어 있고 복수자석이 제시된 표제한자는 단 한 자(字)도 없다. 『통학경편』에 단자석으로 제시된 표제한자 중에는 여타의 문

* 이 논문은 대구가톨릭대학교 2015학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대구가톨릭대학교 한국어문학부 조교수

헌에는 복수자석으로 제시된 경우도 상당수 있어 자석 자료마다 제1자석의 제시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통학경편』에서는 현실성과 실용성을 고려하여 초학자들이 한자를 이해하고 익히는 데 용이한 방식의 자석을 선택하여 제시하였다.

수록된 표제한자 수가 많지 않은 편이고, 자석의 의미층위가 대부분 하위층위의 구체적인 양상을 띠고 있지만, 형태가 다른 표제한자가 동일한 자석으로 제시된 이자동석(異字同釋)이 113개 나타난다. 이자동석으로 제시된 표제한자는 2자가 가장 많고 3자, 4자에 해당하는 동일자석이 소수 있다. 이자동석은 한자를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개별 한자가 가지고 있는 변별적 의미를 일반화시킴으로써 한문의 해독이나 이해를 하는 데 있어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약점이 될 수 있다. 『통학경편』은 편찬자와 간행 지역이 경상도 지역으로 수록된 자석 중에는 경상도 지역 방언이 다수 나타나 방언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지역의 방언이 동일한 어형이 많다는 점과 한자 자석이 가지는 보수성을 고려할 때 방언형 자석에 대해 특정 지역의 방언이라고 규정하기가 모호한 면이 있다.

한자 자석의 어휘의미론적, 국어사적 정보 가치를 미루어 볼 때 『통학경편』에 관한 다양한 관점의 면밀한 연구가 자석 연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주제어: 『통학경편』, 한자 자석, 초학자용, 단자석, 복수자석, 이자동석, 방언, 『자전석요』, 실용성

1. 머리말

개별 한자의 의미를 나타내는 자석(字釋)에 관한 연구는 『천자

문』, 『훈몽자회』 등의 한자학습서와 유해류, 언해서, 자전류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개별 자석의 형태와 의미 분석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번역학과 사전학 등의 연구에 한자 자석 연구를 접목시키고 있다. 자석의 연구는 현대에 확장된 교육 대상과 교육과정에서 한자어휘 교육의 차원에서도 주시(注視)해야 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자석 자료의 발굴과 연구는 국어학 전반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자의 자석을 통시적으로 이해하는 차원에서 그간에 집중적인 연구가 되지 않은 초학자용 한자학습서 『통학경편』(1921)을 대상으로 자석의 수록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대상 자료의 체재

본고의 연구 대상 자료는 경북대학교 소장본인 1921년판 『통학경편』이다. 자료의 전문을 전산입력한 후 체재와 자석 양상을 살펴보았다. 1921년판 『통학경편』은 중간본으로서 다른 판본과 달리 표제한자의 뜻과 음을 일본어로 표기한 부분이 있다.[1] 2권 1책으로 된 『통학경편』의 내용 수록 순서는 맨 처음 남필우의 서(序)가 나오고 이어 『통학경편』의 전반적인 체재에 대한 설명을 붙인 서언(緖言)이 있다. 그 뒤에 상권과 하권의 내용이 차례로 나오는데, 상권

1) 『통학경편』은 1916년판(대정5년), 1917년판, 1918년판, 1921년판이 있다. 필자는 초판본인 1916년판과 중간본 1921년판을 입수하였는데, 1916년판은 첫 장이 낙장되어 불완전하였다. 이에 낙장이 없는 1921년판을 연구 대상 문헌으로 선정하였다. 현재 1917년판과 1918년판은 디지털한글박물관에 수록되어 있다. 1921년판에 있는 일본어 표기는 다른 판본에는 없는 것인데 이 책의 전반적 체재를 설명한 '서언(緖言)'에 "懸註한 日語는 大槪語法上訓音으로 써 日鮮語를 對照하야 漢文 字字마다 右傍엔 訓讀 左傍엔 音讀을 附하되…"라고 되어 있다. 일본어 표기를 문헌의 체재상의 특징으로 볼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분석은 제외하였다.

은 표제한자를 4부 10류의 의미 분야에 따라 나누어 수록하였고 하권은 유취문자(類聚文字) 의미포함(意味包含)이라 하여 한자 상호간 의미적 관련성을 갖고 배열 수록되어 있다. 하권이 끝나고 명심편이 마지막으로 실려 있다.[2] 대상 자료를 일부 스캔하여 제시한다.



『통학경편』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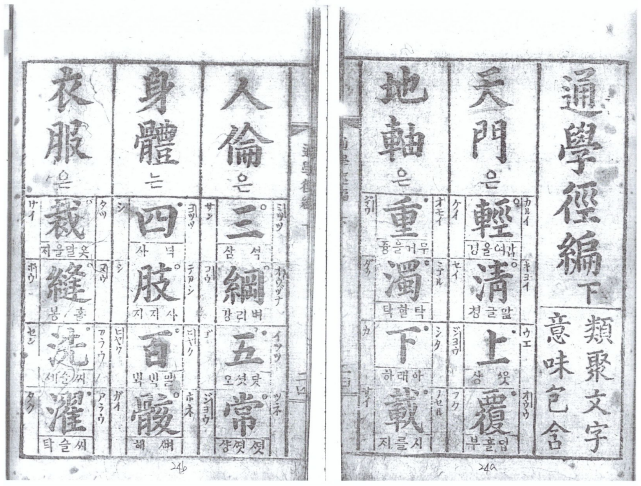


『통학경편』 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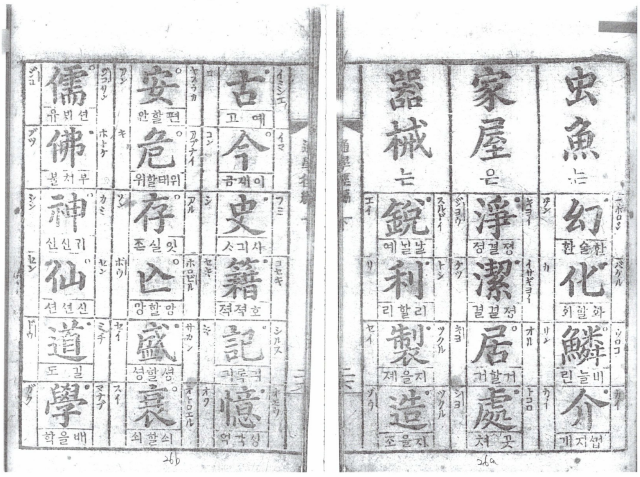
2) 서(序)의 서언(緖言)에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上篇은 物名을 類分하야 使初學者로 指其物敎其名而唯一에 易解할바로 써 編成홈
下篇은 行文上流例文字를 類로 써 句句節節히 意味包含하야 男婦間易口未詳한 文法言語를 實旨로 通曉케홈
銘心篇은 前篇의 敎授한 文字를 混合作文하야 人道에 應行하는 바 孝廉恭謹의 修身制度를 指導實行케홈"



『통학경편』 상권 본문 1장



『통학경편』 하권 본문 1장



『통학경편』 하권 본문 3장

특이한 것은 표지에 제시된 서명 한자 표기와 본문에 제시된 서명 한자 표기가 달리 나타난다는 것이다. 표지에는 '통학경편(通學經編)'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본문에는 '통학경편(通學徑編)'으로 되어 있다. 『통학경편』의 다른 판본에는 '통학경편(通學經編)'으로 표기된 것이 없었다. 겉표지와 속표지의 표기가 다른 것에 대해 어느 한 쪽이 오자인지 아니면 한자의 상호 교체인지에 대한 판단은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현재 비교 가능한 판본에 표기된 것을 종합해 볼 때 『통학경편』의 한자 표기는 '통학경편(通學徑編)'이 일반적이다.[3]

자석의 수록 체재 양상을 살펴볼 때 상권의 자석 수록은 의미를 기준으로 부류명을 정하고 관련 한자들을 4자씩 수록한 것으로 부류의 의미범주 안에서 개별 한자를 익힐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하

3) 디지털한글박물관에도 1917년판 『통학경편』과 1918년판 『통학경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모두 '통학경편(通學徑編)'으로 되어 있다.

권에는 개별 한자를 익히는 것에서 나아가 개별 한자들이 상호결합한 어휘를 익힐 수 있도록 수록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14부류의 관련 어휘를 4자씩 제시한 후 3장에서부터는 부류에 관계없이 1행 6자씩 표제한자가 수록되어 있고 이들은 두 자씩 반의관계 등의 의미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전체 수록 한자 1,244자[4] 중 상권에 제시된 표제한자는 총 518자로 각 부류와 수록 한자 수는 다음과 같다.

4部 : 天文部(40)[5] 地軸部(40) 人倫部(40) 身體部(56)
10類 : 衣服類(52) 飮食類(24) 穀物類(26) 果實類(16) 花菜類(32) 草木類(24) 禽獸類(40) 蟲魚類(40) 家屋類(40) 器械類(48)

『통학경편』의 분류항목은 이전의 한자초학서들과 비교해 보면 그 수가 적은 편이다. 분류 항목이 설정되어 있는 한자초학서 『훈몽자회』(1527), 『신증유합』(1576), 『정몽유어』(1884)의 분류 항목과 수록 한자 수는 다음과 같다.

ㄱ. 『훈몽자회』(1527), 33부류, 3,360자 수록
天文, 地理, 花品, 草卉, 樹木, 菓實, 禾穀, 蔬采, 禽鳥, 鱗介, 昆蟲 身體, 天倫, 儒學, 書式, 人類, 宮宅, 官衙, 器皿, 食饌, 服飾, 舟船, 車輿, 鞍具, 軍裝, 彩色, 布帛, 金寶, 音樂, 疾病, 喪葬, 雜語

ㄴ. 『신증유합』(1576), 27부류, 3,000자 수록
數目, 天文, 衆色, 地理, 草卉, 樹木, 果實, 禾穀, 菜蔬, 禽鳥, 獸畜,

4) 여기에는 동일 표제한자가 두 번 나타나는 중출자 8자가 포함되어 있다. 중출자를 1회로 본다면 총 수록 한자 수는 1235자이다. 중출자는 '長, 計, 部, 經, 輿, 金, 土, 五'이다. 중출자 중 '五'는 3번 나오고 그 외 '長, 計, 部, 經, 輿, 金, 土,'는 각각 2회씩 나타난다.
5) ( )안의 숫자는 수록 표제한자 수이다.

鱗介, 蟲豸, 人倫, 都邑, 眷屬, 身體, 室屋, 鋪陳, 金帛, 資用, 器械, 食饌, 衣服, 心術, 動止, 事物

ㄷ.『정몽유어』(1884), 5개 大節과 63부류, 1,008자 수록
一理生生 : 大本類, 人身大類, 人倫大類, 方大類, 數大類, 時大類, 大化類, 天象大類, 地質大 類, 植物大類, 植物要類, 植物美類, 動物大類, 動物近類, 動物遠類
萬化散殊 : 禀生類, 禀性類, 禀氣類, 物化類, 人道類, 人事類, 理分類, 氣分類, 形分類, 道分類, 事分類, 命分類
名器錯綜 : 人生名類, 飮食名類, 衣服名類, 財産名類, 第宅名類, 田園名類, 飮食器類, 服飾器類, 資用器類, 業作器類, 法度器類, 儀章器類
帝王立政 : 授職類, 分疆類, 建位類, 序民類, 立敎類, 執業類, 興俗類, 定制類, 旌別類, 平章類, 贊化類, 傳統類
聖學明道 : 心體類, 心法類, 立科類, 致知類, 方行類, 小學類, 立戒類, 大學類, 擇術類, 造道類, 傳道類, 載道類

제시한 바와 같이『통학경편』은 한자의 의미부류를 세밀하게 분류하지 않고 간략하면서도 대표적인 의미 중심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상권은 부류별 1행 4자씩 배열 수록하였고, 하권에 와서는 유취문자(類聚文字) 의미포함(意味包含)을 명시하여 상권의 14부류를 구분하여 각 의미분야마다 4자씩 1행으로 배열하여 56자를 수록하였다. 이어 부류명 제시 없이 1면 3행 배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각 행별로 6자씩 모두 41면에 걸쳐 726자가 수록되어 있다. 분류항목과 수록 한자수도 적은 편이지만 표제한자의 자석도 모두 단자석으로 되어 있고 복수자석 표기는 없다.[6]이처럼『통학경편』은 전반적인 체재에서 초학자를 대상으로 한 편찬 방식이 가시적으로 드러난다.[7]

---

6) 두 개 이상의 음과 뜻을 가진 락(樂), 북(北), 색(索), 식(識)의 경우도 한 개의 음과 자석만을 제시하였다. 즐길 락(36a:3), 北 북녘 북(4b:3), 索 차즐 색(39b:3), 食 먹을 식(10b:3), 識 알 식(42b:3)

7) 서언(緖言)에서 다음과 같이 편찬취지를 밝히고 있다. "本書는 初學者의 目으로 見하고 口로 言하는 物質의 名詞와 文法의 言語로 써 敎授하는 次

3. 자석(字釋)의 수록 양상

이 장에서는 이전 시기의 한자초학서들과 비교하여 『통학경편』에 수록된 자석의 특징적 양상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통학경편』에 수록된 전체 자석 수는 1,180여 개다. 한자음이나 우리말 자석에서 복수의 형태가 없고 별도의 보충적 주석도 없다. 이는 우리의 대표적인 한자초학서로 꼽히는 최세진의 『훈몽자회』(1527)에 비해 표제한자에 대한 정보가 매우 간략하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8] 『통학경편』의 편찬자는 문헌의 용도가 아동용 한자학습서라는 데 초점을 맞추어 주요 독자층에서 기초 한자를 익히는 데 용이한 방식으로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즉 문헌 활용도의 실용성과 효율성을 적극 고려한 편찬자의 의도를 예상할 수 있다. 책의 한 면에 실린 표제한자 수가 적고 한자음이나 자석이 이해하기 쉬운 상용자석 하나만 있다면 독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수월하게 한자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자 자석이 가지는 보수성을 떠나 현실적이며 실증적, 실용적인 활용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시기별 언어 현실에서 한자학습서의 편찬 방향도 변화했음을 알려 주는 점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박병철의 논문에서도 "시대의 변화에 따른 한자 사용 양상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전통성을 고려한 표준 새김 즉 훈의 설정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9]

『통학경편』의 자석 수록 양상을 분류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序를 定하야 行文을 速成케 홈"

8) 『훈몽자회』에는 복수자석도 있고 매 표제한자마다 필수적이진 않지만 한문주석과 관련 어휘도 제시되어 있다. 한자음도 속음과 정음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초학자가 이해하기에는 다소 많은 정보가 되어 학습의 용이성은 약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9) 박병철, 「한자 새김 연구의 동향과 전망」, 구결학회, 『구결연구』21, 2008, pp. 250-251.

1) 방언형 자석

『통학경편』은 경북 지역에서 출간된 문헌이다. 편찬자 황응두도 경북 영천 출신이다. 따라서 『통학경편』에도 경북방언 자석이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실지로 『통학경편』에는 '져래', '손틉', '허픠', '목슴', '곡슥', '술가락', '졍지', '혓가래', '싼ᄯᅥ불' 등을 비롯한 다수의 방언형 자석이 수록되어 있었다.[10] 이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ㄱ. 체언

天하날 텬(1a:3), 夕젼녁 셕(2b:1), 朔 초하로 삭(2a:3), 軸 박회 츅(3a:2), 嶽 산마르 악(4a:2), 婦 며나리 부(5b:3), 心 마암 심(8b:2), 穀 곡슥 곡(12a:1), 葉 입사ᄀᆡ 엽(14b:3), 根 쓸히 근(14b:3), 獸 즘생 수(16a:3), 鳶 소리ᄀᆞᆫ 연(17a:1), 虫 비래 츙(18a:2), 螢 ᄲᅡᆫᄯᅥ불 형(18a:3), 蜓 잔자리 뎡(18b:1), 蟀 귓도람이 솔(18b:1), 蛙 ᄀᆡ고리 와(18b:2), 蟻 ᄀᆡ아미 의(18b:2), 蚓 지룡이 인(18b:3), 蛹 본득이 용(19a:1), 螟 ᄲᅩᆼ비래 명(19a:1), 蚤 벼록 조(19a:2), 龜 거복 귀(19a:3), 鮎 머이기 뎜(19b:2), 椽 헛가래 연(21a:1), 戶 기재 호(21a:2), 礎 주초돌 초(21a:2), 匙 술가락 시(22b:1), 上 웃 샹(24a:2), 儒 션ᄇᆡ유(26b:3)/士 션배 사(41b:3), 革 가족 혁(31b:2), 紙 조혜 지(36b:2), 然 벼로 연(36b:2), 容 얼골 용(41b:1), 際 ᄯᅳᆼ 졔(43b:4), 隅 모통이 우(43b:4), 土 흘 토(44a:3), 峰 봉두리 봉(3b:3), 壑 구렁 학(3b:3), 薤 졍구지 히(14a:3), 藻 말밤 조(15b:1), 鰕 ᄉᆡ오 하(19b:3), 廚 졍지 쥬(21a:3), 肺 허픠 폐(8b:2), 巖 바외 암(3b:1), 原 두던 원(3b:2), 祖 하라비 조(5b:2), 崧 ᄇᆡ쳬 송(14b:2), 萵 상쳬 와(14b:2), 狐 여

10) 자석의 표준어형과 방언형을 구분하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찾기가 어려운 가운데, 본고에서는 현대사전에 표준어로 등재된 어형과 동일한 자석을 표준어형으로 보았고, 『경북방언사전』에 등재된 어형과 동일한 자석은 방언형으로 보았다. 여기에 자석 자료 저자의 출신지, 출판 지역 등을 고려하여 분류하였다. 그런데 자석 자료를 살펴보면 편찬자의 출신지와 문헌의 간행 지역이 서로 다르지만 동일한 어형이 많이 나와 특정 지역의 방언이라고 규정하기가 모호한 점이 있다. 이는 한자 자석의 보수성 때문일 것으로 추정한다.

호 호(17b:2), 蟬 ᄆᆡ암이 션(18a:3), 鰍 밋구리 추(19b:2), 椀 종발 완(22a:3), 技 재조 기(27a:1)

ㄴ. 용언

部 거나릴 부(1a:3), 存 잇실 존(26b:2), 學 배을 학(26b:3), 訓 가라칠 훈(27a:3)/指 가라칠 지(30b:2)/敎 가리칠 교(42b:3), 卑 나질 비(27b:1)/低 나질 뎌(29b:2), 勞 수구려을 로(29a:3), 早 일즉 조(29b:3), 坐 안질 좌(30a:2), 俯 숩프릴 부(30a:3), 降 나릴 강(30a:3), 沿 ᄯᅡ라나릴 연(31b:2), 自 스사로 자(30b:1), 稱 일카를 칭(30b:2), 頻 자조 빈(31a:1), 濶 너를 활(31b:3), 鬱 답답을 울(35a:3), 委 바릴 위(37b:3), 備 가출 비(38a:2), 集 모들 집(38a:2), 動 움즉일 동(40a:3), 支 지탕할 지(41a:2), 理 다시릴 리(41a:2), 繕 쒬일 션(42a:1), 産 노을 산(42b:4), 任 맥길 임(43a:1), 散 허칠 산(29a:1), 務 힘실 무(43a:4)

위 표에서 보듯이 『통학경편』에는 현대 경북지역에서 사용되는 방언 어휘가 자석으로 다수 수록되어 있다. 이들 중 '하날', '거나릴', '초하로', '며나리', '귓도람이', '개고리', '술가락', '웃', '가출', '스사로', '새오', '두던', 'ᄇᆡ쳬', '여호', 'ᄆᆡ암이', '밋구리' 등은 『훈몽자회』와 『자전석요』에도 동일한 형태로 나타난다. 『훈몽자회』의 편찬자 최세진과 『자전석요』의 편찬자 지석영이 모두 서울 출생이고 간행시기가 다른 세 문헌에서 자석이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한자 자석의 보수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자석 '입사ᄀᆡ(葉)', '숩프릴(俯)', '너를(濶)', '답답을(鬱)', '모들(集)', '쒬일(繕)', '노을(産)', '흘(土)', '봉두리(峰)', '말밤(藻)', '졍지(廚)', '허ᄑᆡ(肺)', '맥길(任)', '바외(巖)', '졍구지(薤)', '상쳬(萵)', '종발(椀)', '허칠(散)', '힘실(務)'은 『훈몽자회』, 『신증유합』, 『자전석요』에는 표준형으로 나타나는 방언형 자석이다.

추출한 방언형 자석을 살펴보면 '입사ᄀᆡ'는 경북 구미, 경주 등에서 사용하는 어형 '입사구'와 유사하고 '숩프리다'는 경북 포항지역에서 사용하는 '꿉흐리다'와 유사하다. '너를'은 경북 안동, 경

산, 군위, 문경, 영덕, 청송 등지에서 '너르다', '너리다'의 형태로 사용한다. '답답을'은 표준어형이 '답답하다'인데, 경북 봉화, 의성에서 '답답다'로 사용한다. '모들'은 경남 지역의 방언 '모두다'와 유사한데, 경북 영천지역에는 '모이다'의 뜻으로 '모디다'가 있다. '쐽일'은 경북방언 '꾸매다'와 유사하다. '노을'은 '낳다'의 뜻으로 영천지역을 비롯한 경북 전역에서 사용하는 방언형이다. '흘', '봉두리', '말밤', '바외'는 표준어형 '흙', '봉우리', '마름', '바위'에 해당하는 경북방언이다. '허픽'와 '맥길'은 움라우트 현상이 일어난 어형으로 현대 경북방언에 '허패', '맨기다'가 있다. '졍지'는 표준어 '부엌'을 뜻하는데 경북방언에 '정지'와 '정재'가 있다. '졍구지'와 '상쳬'는 표준어 '부추'와 '상추'에 해당하는 방언형으로 경북지역에서 흔히 쓰는 어형이다. '종발'은 '크기가 작은 반찬 그릇'을 뜻하는 경북방언인데 '종바리', '보시기', '종지'의 형태로 경북지역에서 흔히 사용한다.[11] '허칠'은 '흩어지게 하다'의 뜻으로 현대 표준어는 '흩이다'이다. 동일 의미의 경북방언 어형으로는 '흔치다'가 있고 어형 '허치다'는 경남, 전남, 충남지역의 방언에 나온다. '힘실'은 '힘쓸'의 방언형이다. 경북방언에 '사용하다'의 뜻인 '씨다'가 'ㅅ다'의 형태로 나타난 것인데 이는 'ㅆ'이 약한 경상도 지역방언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경상도 방언의 음운 현상을 다룬 김주원의 논문에서도 "현재의 경상도 방언의 일부 지역은 'ㅅ'에 대립하는 'ㅆ'을 음소로 가지고 있지 않다. 예천을 포함 북부 경북은 'ㅅ', 'ㅆ'을 대립 음소로 가지고 있으며 대구를 포함한 남부 경북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였다.[12] 그러나 『통학경편』에는 동일 의미의 어휘가 표준어형과 방언형이 함께 나타나 자석 표기의 일관성

11) 『자전석요』에는 '중발'로 나타나는데 '종발'과 '중발'은 크기가 다른 그릇을 지칭하는 어형이다.

12) 김주원, 「18세기 경상도 방언의 음운현상 - 몇몇 불서를 중심으로 -」,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6, 1984, p. 46.

이 다소 결여된 점이 있다. 예를 들면 표제한자로 2회 출현하는 '土'의 경우 자석이 각각 '흙(4b:2)'과 '흘(44a:3)'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방언형 자석 '너를'이 나오는 반면 '박(博 43a:2)'은 표준어형 자석 '넓을'로 나온다. 또 방언형 자석 '모들'에 비해 '회(會 43a:2)'와 '취(聚 29a:1)'는 표준어형 자석 '모을'로 나온다.

2) 제1자석의 선택

『통학경편』에는 표제한자의 자석으로 단 하나씩만 제시되어 있다. 한자 교육에서 점차 문맥자석과 상용자석을 함께 다루게 됨에 따라 한자초학서에도 표제한자 하나에 자석은 2개 이상 제시되는 복수자석의 방식이 점차로 확대되었다.[13] 이전 시기의 초학자용 한자학습서 『훈몽자회』(1527), 『신증유합』(1576), 『주해천자문』(1752)에 복수자석으로 제시된 표제한자가 각각 51자, 171자, 679자[14]가 있는 데 반해 『통학경편』에는 복수자석으로 제시된 표제한자가 단 한 자(字)도 없다는 것은 『통학경편』의 자석 방식의 특징적 양상으로 볼 수 있다.[15] 이는 한자 초학자들이 한자를 익히는 데 있어

13) 신경철, 『국어자석연구(國語字釋硏究)』, 태학사, 1993, p .96에서는 복수자석의 유형을 쌍자석(雙字釋), 다자석(多字釋)으로 나누어 한 자(字)에 3개 이상의 자석을 제시한 것을 다자석으로 보고 한자초학서로는 『훈몽자회』의 '도(道)'에 삼자석(三字釋)이 제시되었고 이후 영조 28년(1752)에 나온 홍성원(洪聖源)이 쓴 주해천자문(註解千字文)에서 다자석의 형식이 보편화되었다고 하였다.

14) 특히 『주해천자문』은 단자석보다 복수자석의 표제한자가 더 많은 것이 특징인데, 자석의 수가 5개까지 제시된 표제한자가 20자가 넘게 나타나고 2개 자석으로 제시된 표제한자는 무려 327자나 된다.

15) 『훈몽자회』나 『신증유합』에 제시된 복수자석은 2개 자석이 제시된 형식이 대부분이다. 『훈몽자회』, 『신증유합』 두 문헌에서 복수자석으로 제시된 표제한자는 일치하지 않은 것이 많은데 이들에 대한 분석적 연구를 비롯해 자석 자료들의 제1자석 제시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통학경편』에서 전체 표제한자가 단자석으로 나타나

한자 한 자(字)를 복수자석으로 익히는 것보다 개별 한자마다 단자석으로 간략하게 제시하여 한자를 익히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많은 한자를 익히는 데 주안점을 둔 자석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자학습서에서 표제한자에 대한 제1자석은 표제한자에 대한 대표자석으로서, 배열 순서상 제일 먼저 제시되는 것으로 본다. 단자석은 개별 한자의 복수의 의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1자석으로 제시한 것이고 복수자석에서는 배열 순서에서 맨 처음에 제시되는 것이 해당 표제한자의 제1자석이 된다. 제1자석은 편찬자가 당시의 언어 환경과 전후 시기의 전거 문헌들을 참고하여 선택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문헌 비교에서 제1자석의 제시는 크고 작은 차이가 나타난다.[16] 이와 관련하여 박병철의 논문에서도 "초기 단계의 한자 교육에서 하나의 한자에 하나의 새김만을 제시할 때 어떤 단어를 선택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한자 사용 양상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전통성을 고려한 표준 새김 즉 훈의 설정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동일 한자에 대한 자석이 문헌마다 제시되는 자석의 형태가 다르거나 복수자석을 단자석으로 제시한 경우도 있다. 복수자석을 단자석으로 제시한 경우, 제시한 자석이 문헌마다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훈몽자회』, 『신증유합』, 『주해천자문』에 제시된 복수자석이 『통학경편』에는 어떠한 단자석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의 예를 일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姑 시어미 고(通學5b:3)
姑 아ᄌᆞ미 고, 할미 고(訓蒙上 16b)

는 것은 독자 계층에 따라 자석의 사용 빈도나 난이도 등을 고려하고 문헌 체재를 간략하게 갖춘 방식의 하나로도 추정해 볼 수 있다.

16) 박병철, 「한자 새김 연구의 동향과 전망」, 구결학회, 『구결연구』21, 2008, pp. 250-251.

姑 싀어미 고 아ᄌᆞ미 고(類合上 20a)
姑 싀어미 고, 아직 고, 아ᄌᆞ미 고(註千 15ㄴ)

② 帽 모자 모(通學10a:2)
帽 갇 모, 감토 모(訓蒙中 11a)
帽 감토 모 사모 모(類合上 31b)

③ 是 이 시(通學29a:2)
是 올흘 시, 이 시(訓蒙下 12b)
是 이 시 올흘 시(類合上 16b)
是 올흘 시, 이 시(註千 11ㄱ)

④ 心 마암 심(通學8b:2)
心 념통 심, 마ㅿ·ㅁ 심(訓蒙上 14a)
心 ᄆᆞᅀᆞᆷ 심 령통 심(類合下 1a)

⑤ 將 장수 장(41b:4)
將 쟝슈 쟝, 쟝ᄎᆞ 쟝(訓蒙中 1a)
將 장슈 장, 장ᄎᆞ 장(類合下 10b)
將 가딜 쟝, 나아갈 쟝, 보낼 쟝, 쟝슈 쟝, 쟝ᄎᆞ 쟝(註千 21ㄴ)

⑥ 種 씨 죵(通學42a:3)
種 시믈 죵, 씨 죵(訓蒙下 3a)
種 시믈 죵, 씨 죵(類合下 7b)

⑦ 南 남녁 남(通學4b:3)
南 앒 남(訓蒙中 2b)
南 남녁 남 앒 남(類合上 2a)
南 남녁 남(註千 28ㄴ)

⑧ 北 북녁 북(通學4b:3)
北 뒤 븍(訓蒙中 2b)
北 븍녁 븍 뒤 븍(類合上 2a)

위에 제시한 한자는 『훈몽자회』, 『신증유합』, 『주해천자문』에 복수자석으로 제시된 한자들인데 『통학경편』에는 단자석으로 제시되어 있다. ①'고(姑)'는 『주해천자문』에 3개의 자석이 제시되어 있지만 『통학경편』에는 단자석 '시어미' 하나로 제시하였다. ②'모(帽)'는 『주해천자문』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데, 『훈몽자회』와 『신증유합』에 '갇', '감토', '사모'로 자석되어 있는데 『통학경편』에는 보다 현대적인 의미의 '모자'로 자석되어 있다. 이는 시대적인 문화 변화에 따라 자석 어휘도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③'시(是)'와 ④'심(心)'은 복수자석의 제시 순서 차이가 있는데 『통학경편』에서는 '올흘'과 '이' 중 '이'를, '마음'과 '염통' 중 '마암'을 자석으로 제시하였다.[17] ⑤'장(將)'은 『주해천자문』에는 5개의 자석이 제시되어 있는데 『훈몽자회』와 『신증유합』에는 동일하게 '장슈'와 '쟝ᄎᆞ' 2개의 자석이 같은 순서로 배열 제시되어 있다. 『통학경편』에도 '장수'를 자석으로 제시하였다. ⑥'종(種)'은 『훈몽자회』와 『신증유합』에 동일하게 '시믈'과 '씨'가 차례로 제시되어 있는데 『통학경편』에는 '심을'이 아닌 '씨'를 자석으로 제시하였다. ⑦'남(南)'과 ⑧'북(北)'은 『훈몽자회』에서는 각각 고유어 자석 '앒', '뒤'로만 되어 있다가 『신증유합』에서 각각 '남녁'과 '앒', '븍녁'과 '뒤'로 2개의 자석을 제시하고 『주해천자문』과 『통학경편』에서는 각각 '남녁'과 '북녁'으로만 제시되었다. 여기에서 '남(南)'과 '북(北)'의 고유어 자석 '앒'과 '뒤'의 사용은 약화하였고 현대에는 '남쪽'과 '북쪽'으로만 사용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한자 자석의 제시는 시대, 독자층, 편찬자, 편찬 목적, 전거문헌 등 다양한 이유에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 중 문헌들마다 주된 전거문헌의 계보적 파악은 문헌들 상호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할 수

17) 간혹 중국인 유학생의 작문에서 '마음이 아팠다'를 '염통이 아팠다'로 쓴 것을 볼 수 있다. 현대 작문에서 이는 오류문으로 판단하지만 '심(心)'의 자석으로 '염통'의 쓰임을 알 수 있다.

있게 한다.[18] 이와 관련한 논의로 여찬영의 논문에서도 "우리의 자서류에 나타나는 자석들은 중국의 『강희자전』 등의 자서류 그리고 우리의 『규장전운』이나 『전운옥편』 등에 수록된 자의를 많이 참고하였으므로 이들의 자의에 의존적인 것이 많다. 이러한 연유로 우리의 자석 연구에서는 특히 자석 변천이나 개신 등을 다룰 때는 자석의 전거가 되는 이러한 문헌들의 주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통학경편』의 자석은 전반적으로 『자전석요』의 자석과 동일한 형태가 상당히 많다. 『자전석요』는 『통학경편』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편찬된 자전으로 서울 출신의 지석영이 아동을 위해 만든 것이다. 『통학경편』의 편찬자 황응두는 『자전석요』의 자석을 주된 전거로 삼으면서 아동 독자층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자석을 선택하여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당시의 『자전석요』나 『신자전』과 같은 자전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19]

3) 이자동석(異字同釋)

한자 자석 자료들을 살펴보면 서로 다른 표제한자가 동일한 형태의 자석으로 제시된 이자동석(異字同釋)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문헌마다 이자동석의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20] 수록된 한자

---

18) 여찬영, 「지석영 『자전석요』의 한자 자석 연구」, 한국어문학회, 『어문학』 79, 2003, p. 195.

19) 『통학경편』과 비슷한 시기의 자료로 지석영의 『자전석요』(1909), 최남선의 『신자전』(1915), 정익로의 『국한문신옥편』(1908) 등이 있다. 이들은 『통학경편』과 달리 자전으로서 표제한자와 그에 해당하는 의미정보가 다량 수록되어 있다. 이 중 『자전석요』의 경우 "초학자를 위한 자전으로 요긴한 일용한자를 중심으로 『규장전운』의 주해를 따라 요의만을 간략하게 들었다."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통학경편』이 초학자를 위한 한자 학습서이므로 편찬자는 아동 혹은 초학자를 대상으로 한 자료들을 주로 참고했으리라 추정한다.

20) 한자초학서가 아닌 자전의 경우도 정보의 제시양이나 방식이 다른 면이

수가 많은 경우 이자동석은 더욱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문헌에 수록된 자석들이 전체적으로 의미층위가 세분되어 하위층위의 형태로 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기본층위의 의미를 가진 한자들인 경우 모두 동일하게 제시되는 것이 일반적인 이자동석의 양상이다. 이자동석은 개별 표제한자마다 한문주석을 달아 변별적 의미로서 구분하기도 한다.[21] 『통학경편』에도 이자동석이 113개 나타난다. 이들은 표제한자 2자에 나타나는 것이 가장 많고 표제한자 3자, 4자에 동일하게 제시되는 자석이 소수 있다.[22] 이들을 일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選 가릴 션(38b:2)/推 가릴 추(38b:2)
② 皮 가족 피(8b:1)/革 가족 혁(31b:2)
③ 報 갑흘 보(37b:3)/償 갑흘 상(41a:1)
④ 恐 두려할 공(34b:3)/懼 두려할 구(34b:3) 畏 두려할 외(34b:3)
⑤ 納 드릴 납(42b:2)/奠 드릴 뎐(36a:2)/獻 드릴 헌(33b:2)
⑥ 光 빗 광(2b:3)/色 빗 식(44a:4)/陽 빗 양(3a:1)
⑦ 監 볼 감(43a:4)/見 볼 견(41b:1)/覽 볼 람(39b:2)/視 볼 시(41b:1)

있다. 비슷한 시기에 나온 『자전석요』(1909)와 『신자전』(1915)을 보면 『자전석요』는 『신자전』에 비해 의미정보가 매우 간략하고 기본층위의 일반적인 자석의 이자동석이 많다. 이는 『자전석요』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전이기 때문이다. 『자전석요』의 이자동석에 관한 논의는 여찬영, 「『자전석요』의 한자 자석 '고을일홈' 연구」, 언어과학회, 『언어과학연구』25, 2003, pp. 206-212 참조.

21) 이는 편찬자의 세밀한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는데, 19세기 후반에 수암 정윤용이 편찬한 한자학습서이자 분류어휘집인 『자류주석(字類註釋)』(1856)이 이러한 이자동석의 양상을 뚜렷이 보여주는 문헌이다. 『자류주석』에는 10,800여 자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중 동일 자석으로 제시된 표제한자가 10자 이상인 이자동석이 20개 이상 나타난다. 이자동석의 표제한자에는 한문주석을 달아 모양, 색깔, 크기, 용도 등의 의미자질을 표시하여 개별적 의미를 설명하였다.

22) 이는 『훈몽자회』나 『자류주석』과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수이다. 『훈몽자회』에서 자석 '집', '글월', '볼'로 제시되는 표제한자가 10자 이상이고 『자류주석』에는 자석 '옥'으로 제시되는 한자가 무려 49자나 된다.

⑧ 愧 붓그려을 괴(35a:1)/羞 붓그려을 수(35a:1)/恥 붓그려을 치(35a:1)/慚 붓그려할 참(35a:1)
⑨ 述 지을 술(40a:1)/作 지을 작(42a:3)/製 지을 졔(26a:3)/造 지을 조(26a:3)
⑩ 家 집 가(20a:1)/宮 집 궁(20a:2)/室 집 실(20b:2)/屋 집 옥(20a:1)

위에 제시한 것과 같이 서로 다른 한자가 동일한 자석으로 제시되어 있는 이자동석이 『통학경편』에는 113개 나타난다. 이자동석의 표제한자에는 개별 한자의 의미를 변별할 수 있는 한문주석이나 용례 등은 전혀 없다. 따라서 초학자용이라는 문헌의 편찬 목적에 따라 초학자들이 한자를 익히는 데 부담이 적고 쉽게 익힐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변별적 의미를 지닌 한자일 경우 이들을 하나의 자석으로 일반화시킴으로써 개별 한자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자동석의 한자들을 『훈몽자회』, 『신증유합』, 『주해천자문』과 비교한 것을 일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⑪ 術 쐬 술(27a:1)/직조 슐(訓蒙下13b)/묘리, 슐업 슐(類合下8b)
策 쐬 칙(34b:1)/채 칙(訓蒙中13b)/모칙, 물채 칙(類合下25a)/막대, 쐬, 쥭칙, 채 칙(註千22ㄴ)
⑫ 養 기를 양(25b:2)/칠 양(訓蒙下4b)/칠 양(類合上30a)/공양, 칠양(註千7ㄴ)
育 기를 육(42b:3)/칠 육(訓蒙上17b)/칠 육(類合下22a)/칠 육(註千5ㄴ)
⑬ 梁 기장 량(12a:2)/싱동출 량(訓蒙上7a)/싱동출 량(類合下28a)
黍 기장 셔(12a:2)/기장 셔(訓蒙上6b)/기장 셔(類合上10a)/기장 셔(註千28ㄴ)
⑭ 講 닉힐 강(27a:3) 강홀 강(訓蒙下,14a) 講 사길 강類合下 8b
習 닉힐 습(27a:3) 비홀 습(訓蒙下,14a) 習 니길 습類合下 8b 니길 습(註千 10ㄱ)
⑮ 納 드릴 납(42b:2)/드릴 납(訓蒙下9b)/드릴 납(類合下14b)/드릴,

비 납(註千20ㄱ)
奠 드릴 뎐(36a:2)/노흘 뎐(訓蒙下1a)/버릴 뎐(類合下 28b)
獻 드릴 헌(33b:2)/받ᄌᆞ올 헌(訓蒙下7a)/받ᄌᆞ올 헌(類合下14b)
⑯ 頂 이마 뎡(7a:1)/뎡바기 뎡(訓蒙上13a)/뎡바기 뎡(類合上 20b)
額 이마 액(42b:2)/니마 익(訓蒙上13a)/니아 익(類合上20b)
⑰ 規 법 규(31b:1)/도래 규(類合上28b)/경계, 규구, ᄌᆞ규 규(註千16ㄱ)
典 법 뎐(40b:3)/글월 뎐(訓蒙上18a)/법 뎐(類合下42b)/글월, 뎐당, 법, 직흴 뎐(註千20ㄴ)
律 법 률(31b:1)
範 법 범(38a:3)/範 도국 범(類合下36b)
⑱ 索 차즐 색(39b:3)/노 삭(訓蒙中8a)
搜 차즐 수(39b:3)/더드믈 수(訓蒙下10a)/더드믈 수(類合下32a)

위와 같이 『통학경편』의 이자동석은 『훈몽자회』, 『신증유합』, 『주해천자문』 등에 개별적 자석으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또 『통학경편』에서 이자동석의 한자들 중에는 수록 한자 수가 『통학경편』의 약 3배에 달하는 『훈몽자회』, 『신증유합』에는 물론이고 『주해천자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은 한자도 있다. 이런 경우는 『통학경편』에서 이자동석으로 제시된 표제한자 중 하나의 한자만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전체 수록 한자 수나, 이자동석, 중출한자 등은 자석 자료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훈몽자회』나 『신증유합』, 『주해천자문』은 한자초학서이지만 한문주석, 관련 어휘 용례, 복수자석의 제시 등으로 표제한자의 정보를 보다 충실히 제시한 데 비해 『통학경편』은 수록 한자 수도 많지 않고 자석의 방식도 단자석이나 이자동석이 많은 것을 볼 때 초학자용 한자학습서라는 측면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간단명료한 형식과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4. 마무리

본고는 그간에 연구되지 않았던 한자초학서 『통학경편』(1921)을 대상으로 하여 수록된 자석의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통학경편』은 이전의 『훈몽자회』나 『신증유합』 등에 비해 초학자를 위한 한자학습서라는 문헌의 편찬 취지를 적극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징적 양상들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학경편』에 수록된 표제한자 수는 총 1,244자로 『천자문』보다는 244자가 더 많지만, 『훈몽자회』와 『신증유합』에 비하면 3분의 1일 정도에 해당한다.

둘째, 『통학경편』에 수록된 표제한자의 자석은 모두 단자석으로 제시되어 있고 2개 이상 제시한 복수자석은 단 한 字도 없다. 한자교육이 점차 문맥자석과 상용자석을 함께 익히는 방향으로 가면서 표제한자 한 자(字)에 2개 이상의 복수자석의 제시가 점차 확대된 것을 볼 때, 『통학경편』의 일괄적인 단자석의 양상은 특징적이다.

셋째, 『통학경편』에 단자석으로 제시된 표제한자 중에는 여타의 문헌에는 복수자석으로 제시된 경우도 상당수 있다. 이들을 비교하여 보면 제시된 자석의 양상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다. 『통학경편』에서는 현실성과 실용성을 고려하여 한자를 이해하고 익히는 데 용이한 방식의 자석을 선택하여 제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넷째, 형태가 다른 표제한자가 동일한 자석으로 제시된 이자동석(異字同釋)이 113개 나타난다. 이자동석으로 제시된 표제한자는 2자가 가장 많고 3자, 4자에 해당하는 동일자석이 소수 있다. 이자동석은 한자를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개별 한자가 가지고 있는 변별적 의미를 일반화시킴으로써 한문의 해독이나 이해를 하는 데 있어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약점이 될 수 있다.

다섯째, 편찬자와 간행 지역이 경상도 지역인 『통학경편』은 경북지역 방언형 자석이 다수 나타나 방언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 그러나 여러 지역의 방언이 동일한 형태가 많고 한자 자석이 가지는 보수성을 고려할 때 방언형 자석에 대해 특정 지역의 방언이라고 규정하기가 모호한 면이 있다.

본고에서는 『통학경편』에 대한 선행 연구가 드문 가운데, 자석 자료라는 데 연구의 중심을 두고 수록 자석의 양상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다. 한자 자석 연구의 어휘의미론적, 국어사적 정보의 가치에 비추어 『통학경편』에 대한 더욱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통학경편』의 판본 비교나 한자음의 연구, 편찬자와 일제강점기 한자학습서의 출판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 등과 수록 자석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를 앞으로의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통학경편(通學徑編)』(1921), 경북대학교 소장본

2. 논문

김주원, 「18세기 경상도 방언의 음운현상 – 몇몇 불서를 중심으로 –」,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6, 1984, pp.31–56.

박병철, 「한자 새김 연구의 동향과 전망」, 구결학회, 『구결연구』21, 2008, pp. 231–276.

서수백, 「자류주석의 자석 연구」, 한민족어문학회, 한민족어문학 66, 2014, pp. 5–30.

서수백 · 김선희, 「『훈몽자회』와 『자전석요』의 한자 자석의 의미정보 수록 양상 비교 연구」, 언어과학회, 『언어과학연구』55, 2010, pp. 117–140.

손희하, 「새김어휘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1991, pp. 1–193.

여찬영, 「지석영 『자전석요』의 한자 자석 연구」, 한국어문학회 『어문학』79, 2003, pp. 193-211.
여찬영, 「『자전석요』의 한자 자석 '고을일홈' 연구」, 언어과학회, 『언어과학연구』25, 2003, pp. 195-214.
오종갑, 「어간 '줍 -'의 방언분화와 표준어 문제」,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18, 1997, pp. 1-32.
이광호, 「정몽유어 · 아학편 · 천자문의 분포적 특성」, 언어과학회, 『언어과학연구』48, 2009, pp. 101-123.
이준환, 「『아학편(兒學篇)』의 구성과 뜻풀이의 특징에 대하여」, 반교어문학회, 『반교어문연구』36, 2014, pp. 29-64.
이준환, 「정익로의 『국한문신옥편』의 체재와 언어 양상」,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89, 2015, pp. 359-391.
장정호, 「조선시대 독자적 동몽 교재의 등장과 그 의의 -『훈몽자회』와 『동몽선습』을 중심으로 -」, 유아교육학회, 『유아교육학논집』10, 2006, pp. 167-187.

3. 단행본

신경철, 『국어자석연구(國語字釋硏究)』, 태학사, 1993.
이상규, 『경북방언사전』, 태학사, 2000.
이영주, 『한자자의론(漢字字義論)』,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투고일**: 2015. 11.13 **심사완료일**: 2015. 12.9 **게재확정일**: 2015. 12.11)

서수백
소속 : 대구가톨릭대학교 한국어문학부
주소 : (38430)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3-13 대구가톨릭대학교 한국어문학부
전화번호 : 053 - 850 - 3182 / 010 - 5437 -1626
전자우편 : sbseo93@cu.ac.kr

[Abstract]

A Study on Korean Rendering of Chinese characters in 『*Tonghakgyeongpyeon*』

Seo, Su-Baek

This study analyses Korean Rendering of Chinese characters in 『*Tonghakgyeongpyeon*』(1921) Chinese characters first learning book before not study. 『*Tonghakgyeongpyeon*』 is shown renewing nature and utility rather than conservative nature of Korean Rendering of Chinese characters. The total number of Chinese characters found in 『*Tonghakgyeongpyeon*』 for first learning is one thousand two hundred forty four ideograph. Korean Rendering of Chinese characters in 『*Tonghakgyeongpyeon*』 which are not plural Korean Rendering of Chinese characters but all singular Korean Rendering of Chinese characters. also 『*Tonghakgyeongpyeon*』(1921) has Japanese language spell write meaning and sound of Chinese character separately from 『*Tonghakgyeongpyeon*』(1916). this added easy nature of learn.

In addition, 『*Tonghakgyeongpyeon*』 has dialect Korean Rendering of Chinese characters of Gyeongsangdo. 『*Tonghakgyeongpyeon*』 has many of the same Korean Rendering of Chinese characters as 『*Jajeonseokyo*』 dictionary of Chinese characters published by Ji, Seok-Yeong in 1909.

Key words: 『*Tonghakgyeongpyeon*』, Korean Rendering of Chinese characters, first learning book, 『*Jajeonseokyo*』, singular Korean Rendering of Chinese characters, duplicate meanings of chinese characters, duplicate phenomenon which the same Chinese character, utility